F1·세계박람회·U대회 성공 개최 준비할 것 산더미

민선 5기 광주시·전남도 당면과제는

민선 5기를 이끌 광주시장·전남도지사 당선자들의 앞날이 순탄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이들에게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여수엑스포·하계유니버시아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등 지역 경제발전의 초석을 놓기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공사현장(위), 영암 F1 국제자동차경주장 건설현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 주

亞문화전당 다양한 컨텐츠 담아내고

車·가전 등 주력산업 육성 마무리를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민선 5기에서 광주시의 당면과제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우선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철저한 준비, 2014년 완공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중심도시 사업의 면밀한 추진, 자동차·가전·광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과거 민선 3·4기 사업의 '마무리'가 있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 개편에 의한 일자리 감소 대책 마련, 구도심 주거지 재생 등 도시공간구조 개편 시도,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복지비용 마련 등 당면 현안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있다.

2015년에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국제도시 광주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심판대가 될 전망이다.

광주에서 열리는 첫 국제대회이며, 대구시가 이미 치른 바 있는 이 대회를 과거와는 다른 문화적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가 세계무대에 데뷔하는 관문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랜드마크 논란,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논란 등으로 완공 시기가 연장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과 더불어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략도 요구된다. 광주 곳곳에 빛고을시민문화관, CGI(컴퓨터 형성 이미지)관, 영상복합문화관 등 문화관련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이들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발굴도 과제로 남아 있다. 문화중심도시로서의 광주를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정체성'과 '독창성'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갈수록 가치를 더해가고 있는 자동차·가전·광산업 등 광주의 전략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 내 산업구조를 안착시키는 것도 민선 5기가 해야할 일이다. 갈수록 국가 간·도시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친환경', '저탄소', '지속가능성' 등 세계 조류를 파악하며, 산업기반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첨단부품산업, 디자인산업, 에너지산업 등 이제 막 걸음마에 나선 7대 전략산업의 산업화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향후 2050년까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민선 4기 막바지에 계획된 광주시 서구 서창동 일대 관광·레저복합타운, 야구장 신설, 프로축구팀 창단 등도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내륙도시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광주가 전남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배경으로 한 관광기반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당위성에서 시작된 관광·레저복합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제안자격을 얻은 대우자동차판매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난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질 높은 일자리를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이들 일자리 마련으로 지역 인재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인재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선순환 구조'의 정착은 미래도시 광주의 선결조건이다. 제조업이나 단순 서비스업 보다 고급·지적서비스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광주에서 성장하는 문화산업과의 융합을 기도해야 할 것이다.

광주의 도시공간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도 민선 5기의 고민이다. 과거 오로지 고밀도·고효율에만 맞춰져 있는 도시계획·개발의 기준에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삽입하고, 이를 통해 도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거시적·미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 남

J프로젝트·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도 시급한 문제

민선 5기 전남도를 이끌 당선자는 당선 축하에 들뜨기보다는 산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 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당선자 앞에 놓인 최대 숙제다.

최근 버니 에클레스턴(Bernie Ecclestone) 포뮬러 원 매니지먼트(FOM·Formula One Management) 회장이 영암 F1 경주장 건설현장을 찾아 전폭적 지원 의사를 밝히고 성공 개최를 확신했지만 좀 더 짜임새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계 3대 스포츠인데도 여전히 생소한 국민들이 많다는 점에서 대회 개최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붐' 조성에 나서는 동시에 미진한 교통·숙박 대책 등도 다시 보완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F1 대회가 오는 2016년까지 7년간 계속되는데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KOTRA,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와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내외 기업과도 연계, 해외 관광객 및 스폰서십 유치에도 힘을 쏟는 한편, 대회가 끝난 뒤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원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SOC·주요전시시설 건설 등 준비과정의 허술함, 저조한 참가국 유치 문제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소홀함 없이 챙겨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민선 4기 때 추진한 서남해안 관광레저사업(J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개 개발지구 가운데 F1 국제자동차 경주장이 들어서는 삼포지구의 경우 최근 개발계획(안)이 미흡, 재심의 결정을 받았고 부동지구도 당초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앙 정부가 ▲첨단산업권역(그린카, 생태환경 복합단지) ▲녹색산업권역(에너지 생산 및 주거) ▲국제업무권역(국제비즈니스, 컨벤션, 숙박) ▲레저·생태권역(마리나, 리조트, 테마파크,골프장) 등으로 특성화한 새만금 명품도시 개발 방안의 경우 J프로젝트 용도와 상당부분 중첩된다. 따라서 민선 5기 당선자는 J 프로젝트가 새만금 계획으로 투자 유치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추진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로서는 까마득한 무안기업도시 활성화도 민선 5기 당선자가 고려해야 할 과제다. 지지부진한 무안기업도시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의 여파와 세종시 문제 등 해결해야할 숙제가 너무 많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대한 조속한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스스로 약속했던 혁신도시 기반시설 예산을 삭감하는가 하면, 이전예산까지 확보한 한전KDN 등은 부지 매입조차 미루는 등 여전히 지방 이전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무안공항의 활성화 및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 문제도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난제이다.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청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현실에도 불구,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외 우주항공클러스터, 천일염 세계화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